

#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기초한 유아의 환경교육\*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Early Childhood Children based on the Environment-friendly Life Style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윤숙현\*\*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niv. of Honam  
Professor Yoon, Sook Hyeo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기초한 유아의 환경교육 |
| II. 생태주의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 V. 결론 및 제언                   |
| III.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children based on the environment-friendly life style and to improv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it at home and kindergarten. This study reviewed reflectively the early studies on the concepts of ecocentrism, the emerging process of i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children based on the ecocentrism, and the practice of these kinds of education at home and kindergarten.

The main concepts connected to the environment-friendly life style based on ecocentrism, that is, 'preservation of nature', 'interdependence', 'wholeness', 'equilibrium' are the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children. When these kinds of concepts are considered, the aim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children should be focused on the life style tha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symbiosis of human being and nature.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in harmony with ecocentrism are as follows:

The educational methods should be connected to the education based on ordinariness, the learning through adults' model, the family-community-centered

\* 이 논문은 2010년도 호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윤숙현(shyoon@honam.ac.kr)

activities, and ways of thinking of the unity of knowledge and conduct. And educational contents should include all of the life styles in clothes, food, and shelter.

And the educational methods also should be connected to the education through joint working of children and teacher, play-centered education, activities considering ages and individual variations, and education connected home. And educational contents should include many different kinds of activities of experiencing nature outside home and kindergarten.

Key Words : 환경친화적 생활양식(environment-friendly life style), 생태주의(ecocentrism), 유아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early childhood children)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정전사태를 경험하면서, 에너지의 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내복 입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은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 구두선(口頭禪)으로 인식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growth), 즉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되 미래 세대의 자원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Earth Summit)에서 선포되었으며, 이후 각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환경 간의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각이 확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환경 파괴도 가속화되어 왔다.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환경 파괴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환경운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청이 1980년에 환경 정책 주무부처로 발족되었고 1990년에는 환경청로, 1994년에는 환경부로

승격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왔다.

이후 ‘지방자치의 곧 환경자치’ 라는 인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역사회 행정에서 환경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환경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들은 종래의 행정대상 또는 관리대상으로부터 행정의 파트너로 변화하게 되었다(박영숙, 2001 : 21). 환경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삶의 주체가 곧 환경 관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된 진정한 의미의 사회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민이 중심이 된 환경문제 해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조달되어야 할 것이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결요건 중, 사회적 비용이나 기술의 문제 등의 문제에 비하여 공공의식, 즉 시민의식의 변화나 이에 수반되는 생활양식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과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이면서 보다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립을 위하여 가정이

나 교육기관이 담당한 역할은 지대하다.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환경적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삶에 내면화되어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학습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지시가 없을 때에도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며, 분리배출을 함으로써 마음의 불편보다는 몸의 불편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습관화되면 개인의 의사결정 시 갈등을 줄이게 될 것이며,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습관화되면 쓰레기 분리배출은 그 사회를 특징짓는 생활양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회에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지닌 구성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는 환경문제의 발생을 줄이게 될 것이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소비의 감소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빈부의 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게 할 수 있다. 결국,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이 확산되면, 그 사회는 현재와 미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생활양식의 형성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으며, 각 가정의 생활양식은 자녀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세습된다. 바람직한 생활양식의 형성을 위한 자녀의 교육은 자녀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중요성을 지닌다. 더욱이 유아기는 유아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좋은 환경을 접하게 해 주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유아기의 환경교육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이자 생활문화의 품격을 높여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환경교육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에 이르러 크게 증가되었으며, 유아 대상의 환경교육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소

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0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환경교육에 관한 개론적 성격의 연구로서, 환경교육의 접근 방법, 환경교육의 변천사, 미래 방향 모색, 기존의 유아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환경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강철성, 2004; 곽은복, 2005; 김규수, 2002; 김미정·임재택, 1997; 남상준, 2005; 송순재, 2002; 임재택, 2003; 정정희, 1999). 둘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관한 연구로서, 환경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권기남·유안진, 2005; 박성혜·조형숙, 2008; 서태열, 2003; 신금호a, 2008; 임상희·남상준, 2004; 정정애, 2008; 정현모, 2001; 조형숙·김갑순, 2009; 하정연·이숙희, 2009; 한영숙·최태식, 2005). 셋째, 환경교육과 관련된 중요 인적 자원에 관한 연구로서, 유아교사 또는 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태도의 연구와 환경교육 관련 부모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민광순·문혁준, 2006; 박희숙·신금호, 2008; 박희숙·이현경, 2008; 박희숙, 2009; 신금호b, 2008; 조형숙·김현주·홍은주, 2004; 최경순·차미영, 2004; 최필금, 2004).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으나, 최초의 근접환경인 가정의 생활양식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은 개인의 전체 삶 속에서 개인과 가정, 교육시설 등 유아를 둘러싼 주변상황을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이 균형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은 일차적으로는 가정의 생활양식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때 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태도의 하나로서 생태주의를 바라보고, 생태주의를 기본으로 한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형성 측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생태주의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며, 환경교육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최종적으로,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기초한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형성의 일환으로 가족 대상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재구성함으로써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유아 대상의 환경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의 방향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둔다.

## II. 생태주의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 1. 생태주의의 개념 및 발현 배경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기본 관점은 생태주의이다.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에 대비되는 관점이다. 생태주의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생태주의에서는 환경을 관리하기보다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술주의는 환경을 보존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여,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다(이정진, 1998), 이 관점에서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 또는 정책 등에 의존하여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를 효율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반하여 생태주의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공생의 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전환시키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보존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관점은 고대사회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일체적 사고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동양의 경우, 무위자연을 강조하는 도교와 자연과 인위를 절충하려는 유교, 연기적(緣起的)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물들의 상호연관성을 중시하는 불교 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김미정·임재택, 1997 : 70-71). 이렇듯, 생태주의적 관점은 오늘날 새롭게 제기된 관점이 아니며, 동양으로부터, 그리고 더 멀리는 고대로부터, 즉 시공간적으로 우리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기술중심적인 가치관이 점차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특히 서구의 과학기술주의는 동양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제성장 위주의 과학기술정책은 인류의 생활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으나, 사람들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자연의 훼손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많은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기술중심주의로부터 생태중심주의로 변화되면서 사회운동의 한 부류를 이루게 된다. 이 새로운 사회운동에서는 기존의 운동과는 달리 정치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생활의 질, 생활양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시기의 환경운동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자체를 수정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1990년대 ‘유럽 의제 21 프로그램(European Local Agenda 21 Programme)’이 제기되었다(최정신, 2001a : 68 재인용).

우리나라의 1980년대는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반작용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사회의 기쁨이 마려지고 대량소비사회로 진입하여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기반이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시민들은 소비의 증대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환경문제가 생활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차례의 대형 수질오염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오염방지에 대한 관심이 야기되었으며, 화석에너지의 제한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조건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환경운동의 사례로서 한국여성민우회의 ‘적게, 작게, 천천히’ 대안적 생활양식 지향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과 전기의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의 사용 증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확대 등 시민이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이영자, 2000). 이 운동은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생태주의적 가치의 생활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 생태주의에서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의존성’과 ‘전체성’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이 점차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발생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경제발전과 환경을 함께 바라보고, 이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구에서 1970년대 제기된 가족생태학(Human Ecology)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19세기에 Haeckel이 사용했던 용어인 생태학(Ecology)을 가족 이해의 틀로 적용시킨 것인데, Haeckel은 생태학을 ‘유기체 상호 간의 연관성에 관한 학문(the study of interrelationships between organisms)’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사회학자들이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이라는 학문

분야를 만들었으며, 인간생태학을 기존의 생태학, 일반체계이론과 통합하여 가족생태학의 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 이론에서는 가족과 가족의 환경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 간의 단순한 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각 요소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전체성(wholeness)을 중시한다. 이 접근법은 가족이 갖는 물리적 자원과 환경을 이루는 다른 체계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윤중희, 1991 : 197-198).

가정을 가족생태계로 본 Gross, Crandall과 Knoll은 「현대 가족관리학(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973)」의 개정판을 내면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전체’(totality)를 중시하는 이론을 전개하였으며, Paolucci, Hall과 Axinn은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생태계로의 접근(ecosystem approach)을 시도하였다(윤복자·문숙재, 1980 : 130). 또한, Bubolz, Eicher, Evers와 Sontag(1980)은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이 모델을 사용하였다.

셋째, 생태주의에서는 ‘평형’을 중요한 개념으로 본다. 인간생태학, 혹은 가족생태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다루는 관점이므로 정적인 측면에서 자원을 다루는 어떠한 접근방법보다 변화하는 가정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이 관점에서는 인류의 진보라는 개념이 직선적인 발전이 아니며, 최적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상호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연, 1994 : 7). 이와 같은 관점들은 자연의 ‘평형’ 개념을 사회현상에 적용하고 인간과 환경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총체성 등을 중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균형을 사회 발전의 중요 개념으로 등장시키게 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의 과학적 발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드러나고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관점이 생태주의로

나타났으며, 이 관점은 자연의 보존, 구성요소 간의 상호의존성, 전체성, 평형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현대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2. 생태주의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생태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대하는 생활의 기본 태도로서, 의식주 및 육아와 같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활양식(life style)으로 표출될 수 있다. 생활양식은 각 개인이나 집단을 특징짓는 개념으로서, 특정 집단 사이에 일치된 방식으로 공유되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후대로 전수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 사회의 발달이 과연 인간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온 것인가에 의문을 던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게 되었고, 경제적 여건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 생활양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인간을 둘러싼 생활환경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인 녹색소비의 생활문화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의 황폐화 속도를 늦추려면 소비 위주의 생활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들은 어떻게 녹색생활양식 또는 녹색소비를 문화로서 뿌리내려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정착시키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현대인에게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물질적 욕구를 정신적인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가치관, 윤리관은 일상적인 건전한 생활결단과 실천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박영숙, 2001 : 22-24). 즉, 자연(녹색)과의 공생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살아가는 생활양식은 매일 매일의 삶에서 자연을 고려하여 불편이나 고통을 감수하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려는 결심이나 행동의 습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대표적 방식으로서 ‘자발적 단순성 지향 생활양식(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이 제시되었다. 이 생활양식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Leonard-Barton, Dorothy & Rogers, 1980 : 28)을 의미하며, 전쟁이나 불황 등 생활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주는 생활양식(Pestle, Cornille & Solomon, 1982 : 175)으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정생산, 에너지의 다양화, 자원의 재사용 및 공동 사용, 대체가능한 부품 사용, 독서와 산보 등과 같은 저비용의 여가 형태 등의 생활로 나타난다(Cornille, Oransky & Pestle, 1979 : 36-37). 이는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선택한 생활양식으로서, 기계의존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 협동적 가치와 결부된 생활양식이다(박순희, 1997 : 14-15).

듀안 엘진(김승옥 역, 1999)의 저서에서는 1985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단순하게 사는 삶을 위한 네트워크’, 즉, 단순하게 살아가기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순한 삶은 생각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꾸려가는 삶,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삶을 말한다(박명희, 2001 : 53).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타고난 가난이나 강요된 금욕 생활이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한 ‘단순한 삶’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주 바꾸는 값싼 물건보다 비싸더라도 오래 쓰는 물건을 선택하는 삶이다. 이 삶은 은둔생활이나 가난한 삶이 아니며, 생태계에 대한 배려가 함께 하는 숭고한 삶이며, 외적 화려함보다는 내적 성장이 함께 하는 자기 충족적 삶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주의는 과도한 소비를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생활양식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양식, 녹색생활문화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연과 생명의 존귀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며, 지속적인 생활의 습관화를 통한 실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아 대상의 환경 교육의 교육 목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심이 되어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유아 대상의 교육기관의 환경교육이 수반될 때 교육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 어떠한 교육 내용으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어 다루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교육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으로부터의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종류나 환경의 특성 등을 알게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면,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하는 것을 ‘환경으로부터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하는 것을 ‘환경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서태열(2003)은 Huckle(1983)에 의한 환경교육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Huckle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environment)’은 환경에 대한 지식의 전달을 중심으로 하며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전제한다. ‘환경으로부터의 교육(education

from environment)’은 자연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자아를 성숙하게 하며 도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으로서, 환경을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한다. ‘환경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environment)’은 환경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교육으로서 행동과 실천을 중시한다. 즉, 환경에 대한 교육이 사실교육, 지식교육이라면, 환경으로부터의 교육은 정서교육, 기능중심교육이요, 환경을 위한 교육은 가치교육, 사회적 실천교육이라고 본다. Huckle은 이들 중 ‘환경을 위한 교육’만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과 실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시하였으나, 서태열(2003)은 환경을 위한 교육이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환경교육이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계획에서 모두가 요구되는 요소라고 보았다. 이렇듯, 환경교육은 지식과 태도,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타의 다른 교육과 맥을 같이 하며,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이 실행된 것은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환경운동의 한 부분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198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환경교육과 환경을 위한 실천운동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학회에서 다양한 학술활동들이 전개되어 왔고(최정신, 2001a : 67), 1990년 중반부터 대안학교의 형태로 푸른꿈 고등학교, 간디학교, 공동육아어린이집 등이 설립되어 교육운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학교에서는 기존의 교육현상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임재택, 2007 : 123), 우리의 환경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변천과정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나,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 분류한 이재영(2001)의 분류는 고려할 만하다. 그는 한국의 환경교육의 변천과정을

계몽의 시대, 지식의 시대, 체험의 시대, 참여의 시대 등 네 개의 시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계몽의 시대(197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로서, 이 시기에는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여 인식의 변화에 목표를 둔 환경교육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식의 시대(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로서, 이 시기에는 인지적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지식전달 중심의 방법론, 일방적 행동변화 전략에 따른 환경교육이 이루어졌다. 셋째, 체험의 시대(1990년대 중반-현재)로서, 이 시기에는 정의적 영역의 태도와 가치에 중점을 두고, 환경감수성과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중시되고 있으며, 넷째, 참여의 시대(현재 이후)로서, 다시 인지적 영역의 사고와 참여에 중점을 두고, 비판적·반성적 전략, 문제해결학습 중심의 방법론을 초점을 맞춘 환경교육이 추구된다(남상준, 2005 : 188). 이와 같은 변천과정을 Huckle의 분류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환경으로부터의 교육’에서 출발하여,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으로부터의 교육’과 병행한 ‘환경을 위한 교육’으로 초점이 변화되어 왔으며, 다시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환경을 위한 교육’이 다같이 강조되는 추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단계 중,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한 시기는 계몽의 시대에 해당되는 제4차 교육과정(1982년 고시)이다. 제5차 교육과정(1987년 고시)에서는 환경교육이 8대 중점 지도사항으로 명시되어, 환경 관련 내용이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과, 자연과, 도덕, 실업, 국어 등 여러 교과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 분산, 수록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년 고시)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환경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재량시간에 환경교육을 별도로 교수하고 중학교에서는 ‘환경’, 고등학교에서는 ‘환경과학’을 선택하여 교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환경과목을 선택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전국 689개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교육하였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을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다(강철성, 2004 : 5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을 ‘환경’ 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현장 견학, 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연구학교 및 체험학교의 지정 운영, 담당 교사 연수, 에너지절약 실천행사(에너지절약 실천일기 및 수기 공모, 창작곡 경연대회 등), 에너지절약 내용의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하는 에너지 인정 도서 지정보급, 조기교육 일반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학습자료실인 에너지교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황은애, 2008 : 144-147).

한편, 유치원 교육과정에 환경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1995년부터 시행된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이다. 이 교육과정에는 사회생활 영역 중 ‘사회현상과 환경에의 관심’에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자연생태계간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연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기본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미정과 임재택(1997 : 78-80)은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발전적이지만, 유아의 감성 개발이나 정서 함양보다 자연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과학적·기술적 접근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제시된 활동이 자연현장의 체험활동보다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고, 교육 방법 역시 지식 전달 위주의 접근을 우선시하는 것을 한계로 평가하였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아 대상의 환경교육은 아동 대상의 환경교육과는 달리 ‘환경을 느끼는’ 교육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



은 타당하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하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5가지 교육목표 중 한 가지로,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변을 탐구해 나가는 태도의 형성”이 목표로 제시(교육과학기술부, 2008 : 46)되어, 유아 환경교육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탐구의 태도 등이 강조된다.

표준보육과정에서도 6개 영역 중 자연탐구 영역을 영유아가 “주변의 사물과 자연현상을 지각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가지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능력을 기르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제시(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 40-41)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지각, 호기심과 탐구의 태도, 자연 사랑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주의 관점에 기초를 두고 전통적 교육에 대한 대안적 유아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교육의 실천을 모색하며, ‘숲유치원’이 설립되어 새로운 방향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체험 중심의 교육이나 유아의 자발성에 입각한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이 스스로 탐구하여 삶의 이치를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숲유치원(김은숙, 2010 : 115-116)의 시도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기초한 생태주의 유아환경교육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중·고등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980년대 초반부터였으며, 유치원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시행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였다. 이후, 교육과정의 개정에 맞추어 현재까지 환경교육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또한, 특히 유아 대상의 개정된 유아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의 함양을 포함시킴으로써 종전의 지식교육 위주의 환경교육으로부터 정서 및 태도 교육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이나 주변을 탐구하는 태도의 습득 등이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종전에 비하여 진정한 의미의 유아 환경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IV.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기초한 유아의 환경교육

환경교육이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으로부터의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때,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내포한다. 즉, 유아 대상의 환경교육은 유아로 하여금 환경에 관하여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조화롭게 다루되, 최종적으로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더 나아가 자연에 대한 존중감을 갖도록 해 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인간과 자연 간의 공생을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으로 나타나게 되며,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형성은 곧 유아 환경교육의 교육목적이 된다.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은 생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생태주의는 자연의 보존, 상호의존성과 전체성, 평형을 중시하는 개념으로서, 이들 개념에 기초하여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방향을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의 지향 방향은 우리의 전통 가정생활양식으로부터

터 전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환경교육의 지향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유럽의 선진적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기 자녀의 환경 교육

환경교육이 생태주의에 입각하여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습득을 지향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할 때,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의 생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또한, 생활양식은 문화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에서 전통에 바탕을 두게 되므로, 우리나라 전통가정에서 이루어진 가정교육으로부터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가정에서 실행해야 할 교육방법의 방향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송순재(2002 : 10-17)는 자연, 사물, 인간 등 교육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자연 교육을 중심에 두었던 루소의 제안에 기초하여, 자연을 통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 보았다. 그는 자연을 통한 교육이 어머니를 주축으로 하여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교육과 놀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특별

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좋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환경교육을 해야겠다는 명시적인 목적 의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성격상 환경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성인의 시범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가정생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족 의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흥우(1997 : 358-359)에 따르면, 전통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 즉 어른을 대하거나 손님을 대하는 데, 혹은 방을 닦고 마당 쓰는 데 있어서 모든 행동에 법도가 있었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강요는 어른의 시범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전통 가정생활은 성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상하의식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에 비하여 성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아동에 비하여 성인들이 안락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가정에서는 시범을 보여야 하는 성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성인의

〈표1〉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기초한 유아의 환경교육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생태주의) 주요 개념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		
	분류	가정	유아교육기관
‘자연의 보존’	교육목적	- 인간과 자연 간의 공생에 기초를 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실현	
‘상호의존성’	교육방법	-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 성인의 시범을 통한 학습	- 유아·교사 간 공동작업 - 놀이 중심의 교육
‘전체성’		- 가족공동체 중심의 활동 - 지행합일 중심의 교육	- 연령 및 개인차 중시 활동 - 가정과의 연계 교육
‘평형’ (균형 및 조화)	교육내용	- 가족의 의·식·주 생활양식	- 가정 외부 자연 체험

시범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고려할 때 성인 가족이 지닌 책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이 성공을 거두려면 부모에게 부가되는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환경교육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녀에 앞서 부모들이 먼저 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이 성공을 거두려면 부모에게 부가된 책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는 안방과 마루, 마당은 육아의 공간이자 교육적 공간, 아이의 삶의 바탕이 되는 생태 공간이다. 우리 전통사회 가정의 양육 특성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간접적 교육을 중시했으며, 가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교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안경식, 2003 : 33-34). 이렇듯 우리의 전통가정에서는 마루나 안방 등 공동의 공간이 개인실보다 중시되었고, 년중 세시풍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의 활동이 중요시되었는데, 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의 공동체의식은 개인을 보다 넓은 자아로 확장시키는 생태주의 개념에 부합된다. 공동체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편리함을 양보하고 타인의 존재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환경교육 또한 그 본질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 편리함을 양보하면서 환경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한 교육이다. 이 점에서 공동체 중심의 생활과 환경교육은 그 원리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넷째,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든 자녀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생

활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치되어 체득될 때 비로소 환경교육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은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행합일의 정신은 도덕적 행위를 형성하려는 교육적 전통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서구 근대 교육이론은 ‘마음’(mind)에서 인식작용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때 마음은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전통적 구분에서 정신을 말한다. 데카르트는, 사람의 정신 영역이 공간 속에 존재하면서 육체를 초월하여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서구 근대의 인식론은 인식과 체험, 이론과 실천, 지식과 행위가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사회에서는 단순한 인식보다 체험을, 순수한 이론보다 실천을, 지식의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 행위를 중요시 해왔다. 인식과 체험, 이론과 실천, 지식과 행위 모두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당시의 유아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깨달음의 교육’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인식이 아닌 깨달음은 ‘마음’(心) 속에서 일어난다. 깨달음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앎, 귀로 듣는 청각적인 앎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앎과 실천이 일치되는 차원의 앎, 즉 지행합일을 의미한다(문미옥·이혜상·민행난, 2006 : 42-43).

우리의 전통교육에서 도덕교육의 기초로 작용하였던 지행합일의 교육이론이 환경교육의 기초 원리가 될 때 비로소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환경교육이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수준’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실천하고 현상으로 나타나야 하는 ‘실행의 수준’에 의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환경교육은 일종의 도덕교육, 윤리교육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교육방법을 통하여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실행해야 할 교육의 내용으로는 가족의 ‘의식주 생활양식’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가정에서는 의식주 모든 영역에서 근검의 생활이 강조되었다. 의복과 음식을 만들며 집안을 청소하는 등 모든 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분한 욕심을 억제할 것이 요구되었다. 소혜왕후 한씨의 「내훈(內訓)」에서는 초(楚)나라의 접여(接輿) 부부의 대화(對話)를 사례로 들어, 품위있고 자발적인 의미의 근검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에서는 의복을 사치스럽거나 유행에 따라 요란스럽게 해 입거나 격에 맞지 않게 입는 것을 경계하고 의복의 관리와 세탁을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윤숙현, 1996 : 285-287). 이를 통하여 화려한 복식을 추구하기보다 잘 관리된 의복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생활태도를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가정의 자녀 양육 행동이 생태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검절약의 정신은 곧 자원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교육의 기초가 된다. 특히, 적극적 의미의 근검의 정신 등은 현대사회에서도 충분히 발전시킬 소지가 있다. 예컨대, 적절한 옷차림으로 냉난방 에너지 줄이기,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타기, 냉장고 문 열기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등 끄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만 즐거운 실천’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식주 및 소비생활에 있어서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정원, 2010 : 131). 이

는 다시 쓰고, 고쳐 쓰고, 덜 쓰는 습관의 생활화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생활로 인한 불편함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이 요구된다(조형숙, 2010 : 43-44).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이 유아로 하여금 ‘시켜서 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한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 한다’는 자발성을 갖도록 하는 일이며, 이 행동을 통하여 유아의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행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생활은 인내하고 희생하는 생활로 보일지 모르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유아도 어른처럼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아의 사고에 어른의 사고를 투사한 결과이다. 유아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곧 부모가 제시하는 대로 생활이 곧 삶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면 자녀에게는 그것이 곧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의미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을 위한 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에서 추가적으로 실천해야 할 생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지난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유아기에는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초기 경험은 유아의 이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기초가 되며, 유아 자신의 인격이 내면화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환경교육은 생활양식의 형성으로 드러나게

1) 접여가 회남 땅을 다스리라고 한 임금의 명령을 아내에게 전하자,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당신을 섬기며 몸소 밭을 갈고 음식을 마련하여, 몸소 길쌈을 하여 옷을 지어 입어도 배는 부르고 따뜻하였습니다. 의로움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 그 즐거움을 더하여 역시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이 주는 많은 녹을 받고, 남이 주는 튼튼하고 좋은 말을 타며, 남이 주는 살찌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된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內訓, 廉儉章>

되므로, 그것은 가정생활에서의 일상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될 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의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입각한 환경교육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 2.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의 환경교육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유아 환경교육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아의 환경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아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환경교육 또한 성공을 거두려면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그리고 공식적인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유아교육이 가정교육과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듯이, 환경교육 또한 이 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 또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환경교육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교육에서 그것을 지속시킬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환경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환경교육이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식교육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식 교육은 가정교육, 유아교육,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생활 속의 체득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이러한 교육담당 주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서는 효과

를 발휘하기 어렵다. 교육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간에, 몇몇 개인 또는 몇몇 기관에서 성공을 거둔다고 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모든 기관이 자신이 맡은 바 교육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 그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유아들은 부모와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던 환경교육에서 벗어나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제 삼자가 제시하는 환경교육에 접하게 된다. 부모가 아닌 제삼자가 제시하는 환경교육이 부모가 강조하던 환경교육과 동일한 성격을 띠 때 부모의 환경교육은 비로소 객관성을 가지면서 아동에게 확고한 하나의 생활패턴으로 자리잡게 된다. 유아들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지적 과정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직관으로 인식하게 된다.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에 바탕을 둔 환경교육이 성공을 거둘 때 비로소 상위 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걸돌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에 의한 환경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자신의 생활과 관련을 맺지 못하고 인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환경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반성적 사고인 환경에 대한 지식 교육은 그만큼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성격상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은 곧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통합교육과정에서는 개별적인 행위나 지식보다는 ‘전체’가 강조되

며, 상호독립적인 요소보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중요시된다. 이 점은 곧 앞에서 살펴보았던 생태주의의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이자 곧 교육’인 통합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삶 속에서의 환경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이 점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은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기관에서의 교육에는 차이점 또한 분명하게 존재한다.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이 주로 의도적이기보다 생활 속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며, 그것은 그 후의 교육 또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 ‘유초연계교육’이다. 물론 통합교육과정의 특성은 비단 환경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성격상 생태학적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환경교육의 효과나 지속성에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그 밖의 상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교육은 단순한 인식 수준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생활패턴 형성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태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부합되는 환경교육의 방법론을 환경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참조하여, 유아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실행해야 할 교육방법의 방향으로 든다면 다음과 같이 대략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유아·교사 간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예를 들면, 환경교육은 각급 교육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실행되는데, 각급 학교에서는 연간 환경교육의 계획과 방법을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교

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환경개선활동에 참여한다. 학교 운동장의 아스팔트를 잔디로 대체하고 교정의 재활용 유리 온실에서 딸기와 채소 등을 재배한다. 학생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퇴비 만들기, 화단 가꾸기 등 자연학습을 계획표에 따라서 교육받는다. 특히, 유치원 등 유아 대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유아와 함께 일하게 되면, 유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집에 가서 실행하기 때문에 부모 등의 성인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가정에서의 환경교육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 상호작용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대부분의 유치원에는 생태순환체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실험장으로 온실, 퇴비장, 양계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유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나무를 심거나 공원에서 기르는 동물의 양육이나 식물재배 실험을 도와줌으로써 환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최정신, 2001b : 14-15). 이 점은 앞에서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에서 살펴보았던 일상성, 성인의 시범, 공동체 중심의 활동, 지행합일의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되, 교사의 시범과 모범이 교육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야 하고, 교사와 다수의 유아가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을 통하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놀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의 취학 이전에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놀이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의 유치원 교육은 얼핏 보면 뚜렷한 교육방향이 없는 듯이 비추어지기도 한다. 유아들에게는 산책과 자연학습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배운다. 유치

원 교사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정원에 핀 꽃을 꺾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동이 있다. 이렇듯 독일의 유치원에서는 직접적이고 특별한 환경교육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생활이나 놀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행한다(김동희, 2004를 박순희 : 158에서 재인용). 이 점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강요의 성격을 띠는 교사의 지시에 의한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때 놀이 중심의 교육을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놀이에 관한 한 ‘교사의 관점’과 ‘유아의 관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시키는 모든 활동이 하나의 ‘놀이’로 인식되도록 해야 하지만, 교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교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놀이가 자신들이 늘 하던 하나의 놀이로 인식되지만, 교사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교사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 행하는 하나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유아들의 놀이는 교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엄연한 교육인 것이다. 이 점을 망각할 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는 유아들이 놀이터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말 그대로의 ‘놀이’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경교육 또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컨대, 후진국에서 아이들은 선진국의 아이들과 동일한 ‘놀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놀이가 환경교육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셋째, 연령 및 개인차를 중시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유아 환경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아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연령에 따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성숙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은 자연과 인간의 삶이 지닌 중요성, 삶에 대한 경의심을 키울 수 있으며, 유아들의 판단력과 결단력이 성장하면서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학습하게 된다(김동희, 2004를 박순희 : 159에서 재인용).

특히, 유아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행하거나 두려운 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학습준비도에 준하여 교육내용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만 4세까지는 환경 문제의 단기적인 영향만을 다루고, 6세가 되면 장기적 영향의 내용도 다루는 것이 좋다(강정원, 2010 : 133). 이렇듯 어린 연령에서부터 다양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환경교육의 목표나 내용, 방법에 있어서는 유아의 연령이나 개인차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과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환경교육은 가정과 교육기관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한다(김동희, 2004를 박순희 : 158에서 재인용). 최근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가정과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유아의 환경교육의 의미나 중요성이 교육기관이나 부모에게 인식된다면 부모참여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교육방법을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실행해야 할 환경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정을 벗어난 가정 외적 영역의 자연 체험 활동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이 포함된 이후, 환경교육의 내용이 음식물과 관련된 내용, 물·전기·바람·전기·석유 등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과 같은 환경에 대한 지식적 측면의 이해에 치우쳐 왔다는 인식으로부터 최근 법적 틀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좀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사들은 비교적 최근(신금호b, 2008)까지도 유아 환경교육이 환경문제나 환경보존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자연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이야기 나누기 등의 지식 전달 위주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유아기 자녀의 교육기관 의존율이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가정의 일상생활에 대한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체득하는 내용 이외에도 가정 외부의 자연, 즉, 나뭇잎, 열매, 바람, 소리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보완하기에 적합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기초한 유아의 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환경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생태주의의 개념 및 발전과정, 생태주의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 기초한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태주의에 입각한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에서는 ‘자연의 보존’, ‘상호의존성’, ‘전체성’, ‘평형’ 등이 주요개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개념들에 기초하여 유아 환경교육의 교육목적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유아 환경교육의 목적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의 환경교육은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성인의 시범을 통한 학습, 가족공동체 중심의 활동, 지행합일의 중시 등과 같은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내용은 가족의 의식주 생활양식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기 자녀의 환경교육은 유아-교사 간 공동작업을 통한 교육, 놀이 중심의 교육, 연령 및 개인차를 중시하는 활동, 가정과 연계된 교육 등의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내용은 가정 외부의 자연 체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유아의 환경교육에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기술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태중심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아 대상의 환경교육이 개별적이고 기술론적인 사실에 치중한 환경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질 경우 진정한 의미의 환경교육에서 어긋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중심적 환경교육을 받은 유아들은 환경을 인간을 위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오히려 자연, 생명, 인간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만들 위험이 있다. 물론 각각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될 것이지만, 적어도 교사는 그 각각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의 담당자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외심, 노동에 대한 긍정적 사고, 생태윤리 및 책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방향 감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적 성장이 가져온 폐해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교육의 내용을 보다 포괄적인 맥락



에서 개인의 삶의 질 혹은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생활양식은 구성원의 생활 문화 및 사회적 전통에 기반을 두므로, 우리나라 전통 교육과 연계하여 유아 환경교육의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우리의 전통 가정 생활에서 유지되어 오던 문화적 전통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각급 학교 간, 가정과 교육기관, 지역사회, 정부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및 성인 대상 생애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된 환경교육을 통하여 영유아기에 형성된 습관을 성인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이나 그 이후의 교육에까지 연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나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은 환경교육 주체들 간의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교육의 실행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부모, 영유아를 포함시킨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이며 강력한 교육의 효과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유아 환경교육은 생태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 담당자들의 확고한 교육 목표 하에 일상생활과 놀이, 성인의 시범, 공동체 활동 및 자연의 체험 활동, 가정과 교육기관의 연계 등이 증시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양식의 일부로 유아 환경교육이 정착될 때, 환경교육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문화 형성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정원(2010). 녹색문화인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9-156.
- 2) 강철성(2004). 21세기 환경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509-516.
- 3) 곽은복(2005). 생태지향적 관점에 근거한 유아 환경교육의 전망. 아동연구, 14(1), 83-96.
- 4)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I-총론.
- 5) 권기남·유안진(2005). 유아환경교육프로그램이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 정서적 태도, 행동통제감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3(8), 99-114.
- 6) 김규수(2002). 조기교육과 아이들의 삶. 생태 유아교육연구, 1(1), 29-47.
- 7) 김동희(2004). 독일의 환경교육. 박순희(편) (2008). 가정에서 세상을 바꾸어 보아요. 서울: 생각나눔, 147-183.
- 8) 김미정·임재택(1997). 생태지향주의에 기초한 유아환경교육의 접근방안 모색. 유아교육논총, 7, 61-96.
- 9) 김은숙(2010). 녹색문화인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의 실제-인천대학교 숲유치원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3-126.
- 10) 남상준(2005). 한국의 환경교육 연구·실천 경향의 분석: 변천모형 및 유형의 적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2), 187-196.
- 11) 문미옥, 이혜상, 민행난(2006). 한국전통문화와 유아교육. 서울 : 양서원.
- 12) 민광순·문혁준(2006).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원장·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69-77.
- 13) 박명희(2001). 시민생활양식변화의 전망과 녹

- 색생활문화. 제2회 녹색소비자연대 목적과 사업연구회 자료, 32-55.
- 14) 박성혜·조형숙(2008). 생태그림책을 활용한 자연친화교육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2(5), 275-298.
  - 15) 박순희(1997). 단순성지향(Voluntary Simplicity)이 가정복지에 미치는 영향 -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 가사노동 만족도, 경제적 복지를 중심으로-.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6) \_\_\_\_\_(2000).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운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38(11), 89-104.
  - 17) 박영숙(2001).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 양식 리우 +10과 녹색소비. 제2회 녹색소비자연대 목적과 사업연구회 자료, 18-31.
  - 18) 박희숙(2009). 가정 연계 모델 중심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1-23.
  - 19) 박희숙·신금호(2008). 유아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의 환경교육 인식과 환경 친화적 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1), 99-114.
  - 20) 박희숙·이현경(2008). 유아교사의 개인적 요인, 환경교육 인식, 환경친화적 태도에 따른 환경 교수효능감 연구. 유아교육연구, 28(2), 51-68.
  - 21) 서태열(2003). 지구촌 시대의 '환경을 위한 교육'의 개념적 모형의 재정립.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1), 1-12.
  - 22) 송순재(2002). 자연의 길을 따르는 생명교육 -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1), 1-28.
  - 23) 신금호a(2008). 유치원 환경을 활용한 유아 환경교육 활동이 유아의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2(4), 399-415.
  - 24) 신금호b(2008).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5), 429-449.
  - 25) 송순재(2002). 자연의 길을 따르는 생명교육-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1), 1-28.
  - 26)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보육프로그램 총론.
  - 27) 윤숙현(1996). 전통사회 가사노동의 의미 고찰.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논문집, 3, 283-292.
  - 28) \_\_\_\_\_(2000). 생활문화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의 방향 모색.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8, 271-278.
  - 29) 윤복자·문숙재(1980). 가정관리 개념체계를 위한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18, 129-137.
  - 30) 윤종희(1991). 가족학 연구와 가족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족연구회(편).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미시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교문사, 197-226.
  - 31) 이명환(2010). 녹색문화인 양성을 위한 영유아교육.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01-120.
  - 32) 임상희·남상준(2004).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 체험과 환경적 감수성을 중심으로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497-507.
  - 33) 이정연(1994). 가정학의 메타이론 : 인간생태학적 접근의 타당성. 대한가정학회지, 32(3), 1-9.
  - 34) 이정전(1998). 녹색경제학. 서울: 한길사.
  - 35) 이흥우(1997). 증보 지식의 구조와 교과. 서울: 교육과학사.
  - 36) 임재택(2003). 가르치지 않는 유아교육. 생태유아교육연구, 1(1), 1-20.
  - 37) \_\_\_\_\_(2007). 생태유아교육개론. 서울: 양서원.
  - 38) 정정애(2008).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 및 환경친화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2(4), 69-88.

- 39) 정정희(1999). 환경교육 : 취학전 아동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와 책임감 있는 행동 개발을 위한 제언. *아동교육*, 8(2), 159-166.
- 40) 정현모(2001). 학교숲의 환경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지리·환경 교육*, 9(2), 125-137.
- 41) 조형숙(2010). 영유아를 위한 녹색성장 교육의 방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3-45.
- 42) 조형숙·김갑순(2009). 자연물을 이용한 수 활동이 유아의 수개념 이해, 수학적 태도 및 환경친화적 태도 증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3(4), 341-366.
- 43) 조형숙·김현주·홍은주(2004). 유아 교사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8(1), 33-50.
- 44) 하정연·이숙희(2009). 유아를 위한 자연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생태유아교육연구*, 8(4), 157-186.
- 45) 한영숙·최태식(2005). 경험중심의 환경교육 활동이 유아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6), 237-245.
- 46) 황은애(2008). 지속가능한 에너지소비생활 유인 방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008-14*. 서울: 한국소비자원.
- 47) 최경순·차미영(2004). 유아교육기관의 환경보전 부모교육프로그램 효과연구. *아동학회지*, 25(4), 177-190.
- 48) 최정신a(2001).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운동과 주거환경. *지속가능한 삶과 생활환경. 제54차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6-71.
- 49) 최정신b(2001). 스웨덴의 환경운동과 생태건축. *제2회 녹색소비자연대 목적과 사업연구회 자료*, 4-17.
- 50) 최필금(2004). 유아의 생태적 식생활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3(1), 189-222.
- 51) 하정연(2002). 생태유아교육의 기본 체계 탐색. *영유아보육연구*, 8, 1-21.
- 52) 한경식(2003). 우리 조상들의 아이키우기 : ‘집안’에서의 유아교육. *생태유아교육연구*, 2(1), 21-39.
- 53) Bubolz, Margaret M, Joanne B. Eicher, Sandra J. Evers & Suzane Sontag(1980).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 Research Journal*, 7, 103-136.
- 54) Cornille, Thomas A., Oransky, Karol S. & Pestle, Ruth E., Cornille,(1979). Changing family lifestyles: Adapting to the energy crisis. *Journal of Home Economics*, 71(4), 36-37.
- 55) Leonard-Barton, Dorothy & Rogers, Everett, M.(1980). Voluntary simplicity,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7. eds. J. C. Olson, Ann Abor :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28-34.
- 56) Ruth E., Cornille, Thomas A. & Solomon Karol. (1982). Lifestyle alternatives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attitude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75-182.

- 투 고 일 : 2012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월 27일